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0 주차 (롬 11:9-11:26)

(2016년 3월 25일 - 2018년 3월 31일)

(제5권 30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3 월 2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락 (3)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1:9~10)

- ⁹ καὶ Δαυὶδ λέγει·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γενηθήτω ἡ τρῶπιζα αὐτῶν εἰς παγίδα·(그들의 테이블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소서)
καὶ εἰς θήραν·(그리고 덫이)
καὶ εἰς σκάνδαλον·(그리고 거치는 것이)
καὶ εἰς ἀνταπόδομα αὐτοῖς·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이)
- ¹⁰ σκοτισθήτωσαν οἱ ὀφθαλμοὶ αὐτῶν τοῦ μὴ βλέπειν·(저희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καὶ τὸν νῶτον αὐτῶν διὰ παντός σύγκαμψον··(저희 등은 늘 구부러지게 하소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시편은 총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107 편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시편 107 편은 시편의 마지막 책을 여는 시다. 이 시는 칠십 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다. 시편의 맨 마지막 책은 바로 이런 노래로 시작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²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같이 말할찌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³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시 107:1-3).

시편 107 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히브리어로는 ‘호두 라여호바’(חַדְוּ לַיהוָה)다. ‘호두’는 동사 ‘야다’의 히필(hiphil) 표현인데 ‘야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너무 기뻐서 마음 속에서부터 찬양이 흥얼거리며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감사란 그런 것이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상태다. 지금 이 시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귀환하기까지 칠십 년을 적국의 땅에서 보냈다. 그들은 아마도 맨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왕족들과 귀족들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존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모든 소유를 빼앗긴 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대부분이 그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그 후손들이 놓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노래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연속되는 노래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⁴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⁵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중략)...

¹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¹¹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¹²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중략)...

¹⁶ 저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¹⁷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¹⁸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방황, 굶주림, 목마름, 영혼의 피곤, 흑암, 사망, 곤고, 매임, 범죄, 죄악, 고난 등으로 표현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모진 수모를 겪었겠는가? 그런데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누가 이들을 이같은 고난으로 몰아갔을까? 성경은 그들을 고난으로 몰아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절대로 사탄이 아니다. 역대하 36 장 17 절~21 절을 보자.

“¹⁷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¹⁸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와 그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¹⁹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²⁰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지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²¹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대하 36:17-21).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신 걸까? 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림, 흑암, 사망, 엽매임,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등을 체험하도록 하셨을까?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분리해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통해 그들 내면에 잔재하는 우상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등을 잘라내셨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셔야만 했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들의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치장하는 위선이었음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감겨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앞 못보는 장님이 되어 수렁에 빠졌고 그로 인해 지나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론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기도 하신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놓임을 받았다. 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사슬을 풀어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식량을 주며,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가져다 주신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함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1~12)

- ¹¹ Λέγω οὖν,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μη̄ ἔπταισαν ἵνα πέσωσιν; (그들이 넘어지도록 실족하였느냐?)
μη̄ γένοιντο·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ἀλλὰ τῷ αὐτῶν παραπτώματι ἢ σωτηρία τοῖς ἔθνεσιν
(그러나 그들이 결길로 나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εἰς τὸ παραίτησάσθαι αὐτούς· (그 결과 그들이 시기가 났다)
- ¹² εἰ δὲ τὸ παράπτωμα αὐτῶν πλοῦτος κόσμος (만약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καὶ τὸ ἴτημα αὐτῶν πλοῦτος ἔθνων,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πόσω μᾶλλον τὸ πλεονεκτήμα αὐτῶν. (더더욱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크겠느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느부갓네살 때에 완전히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빠른 시간 안에 재건했다. 남은 것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⁶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⁶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⁷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⁸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⁹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느 8:5-9).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회개를 한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들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이켰다. 그들은 팔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회를 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 기도가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모두가 금식을 하고 굶은 베틀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기도했다고 쓰고 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만했던 자신들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그 동안 관계를 맺어 왔던 이방 사람들과도 완전히 절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바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이었다 (느 9:1-3참조).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같은 민족적인 수모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말이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사회, 문화, 법률 체계, 정치 등 모든 분야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특히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고 셀루시드(헬라어로 셀레코우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 때 있었던 마카비 혁명을 거치면서 그 전통은 유대교라는 독특한 종교로 발전해갔다. 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바리새파 랍비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바울은 그들이 결길로 나갔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결길로 나간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벗어나 세상에서 마음 내키는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지에 대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그리고는 율법의 각 항목대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규범까지 만들어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범들을 만들어 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들고 지켜 온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분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일 궁리까지 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6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⁷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⁸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⁹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¹⁰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¹¹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¹²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¹³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막 7:6-13).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지적했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를 말한 것이 그리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다.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고 질타하셨다. 그들이 세세한 규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변개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그 옛날 조상들이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때과 똑같은 일이 재연될 것이다. 또한 그날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회개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이 엄격한 도덕주의로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안고 있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당신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처럼 당신도 어떻게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3~16)

- ¹³ Ὑμῖν δὲ λέγω τοῖς ἔθνεσιν· (내가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말한다)
 ἐπ’ ὅσον μὲν οὖν εἰμι ἐγὼ ἔθνῶν ἀπόστολος,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τὴν διακονίαν μου δοξάζω, (나의 직분을 존중한다)
- ¹⁴ εἴ πως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παροξυλώσω μου τὴν σάρκα (나의 육신[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καὶ σώσω τινὸς ἐξ αὐτῶν.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 ¹⁵ εἰ γὰρ ἡ ἀποβολὴ αὐτῶν καταλλαγὴ κόσμου, (만약 그들의 버려짐이 세상과의 화목[이라면])
 τίς ἡ πρόσλημις εἰ μὴ ζωὴ ἐκ νεκρῶν;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 ¹⁶ εἰ δὲ ἡ ἀπαρχὴ ἁγία, (만약 첫열매가 거룩하다면)
 καὶ τὸ φύραμα· ([빵의] 덩어리도 [거룩하다])
 καὶ εἰ ἡ ῥίζα ἁγία, (만약 뿌리가 거룩하다면)
 καὶ οἱ κλάδοι. (가지도 역시 [거룩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곁길로 갔다. 그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나 바알 같은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 안에 머무르려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을 우상화하는 우를 범했다.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명분과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음은 앞서 여러 번 주지한 바다.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갖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밝힌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사도들은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은 받았을망정 유대인 전체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비록 내용에 있어서 유대교와는 다른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나온 다른 종파의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니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던 이방인들이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에 직면해야 했다. 로마서를 쓰고 난 후 언젠가 바울은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려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며 바울을 말렸으나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¹⁷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¹⁸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¹⁹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날

이 고탘니²⁰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²¹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 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행 21:17-21).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도 점점 높아져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엄청난 적대 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야고보는 수많은 골수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 (야고보는 유대인들과는 공존할 수 있었으나 62년 네로의 박 해가 본격화 될 때 당시 유대 총독 안나스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유독 바 울에 대해서는 이런 적대감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에 정한 모든 것 들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여기던 할례까지 면제해 주자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에게 있어 바울은 유대교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같은 바울에 대한 반감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사실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 로마 정부는 기독교의 포교에 대해 관대했다.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다. 특히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허용하고 있었고 기독교도 거기에서 나온 이단 종파 정도로 여겼기에 포교 를 막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교회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 바울 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 스라엘의 시기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 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원래 복음의 주인이었 음을 재차 상기시킨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지금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 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전통도 따르게 했다 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이스라엘 이 희생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분명 복음의 첫 열매다. 그들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었다. 그들이 교회의 첫 열매이자 뿌리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 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곡식의 열매 가 되었고 추수를 거쳐 빵의 재료가 되었다. 그 곡식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빵덩어리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인 썸이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복음의 뿌리고 이방인들은 그 뿌리가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살아나게 된다. 비록 그들 중 일부가 복음을 거부 한다 해도 그들을 함부로 비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왔다. 그 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영지주의나 도덕주의,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 아직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온전한 복 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값없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이방인이여! 이스라엘을 향해 우월한 척 말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7~18)

- ¹⁷ Εἰ δὲ πνευ τῶν κλάδων ἐξεκλάσθησαν, (만약 얼마의 가지가 잘려나갔고)
σὺ δὲ ἀγριέλαιος ὢν ἐνεκεντρίσθης ἐν αὐτοῖς (야생 올리브나무인 당신이 그것들에 접붙임을 당했다면)
καὶ συγκοινωνὸς τῆς ρίζης τῆς πύοτητος τῆς ἐλαίας ἐγένου,
(진짜 올리브의 진액과 뿌리의 일부분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면)
- ¹⁸ μὴ κατακαυχῶ τῶν κλάδων· (그 가지들을 향해 우월한 척하지 말라)
εἰ δὲ κατακαυχῶσαι (만약 자랑한다 할지라도)
οὐ σὺ τὴν ρίζαν βαστάζεις (당신들이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ἀλλ' ἡ ρίζα σέ. (뿌리가 당신들을 보전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의 얼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매우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다.

“⁴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¹²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10-13).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자주 무시하고 어겼다. 늘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이며, 삼십팔년 된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등,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자기도 일한다는등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서슴없이 하셨다. 결국 누적된 갈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메시아 후보에서 탈락하고 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 내신 사건은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성전을 허물라고 말하심으로써 십자가행을 앞당기셨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잘려나갔다. 잘려나간 가지들은 모두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해왔는데 그 믿음이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 온 메시아를 죽인 셈이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비유로 가르치신 바 있다.

“⁴²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³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⁵ 저

회가 돌아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⁶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⁷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⁸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⁹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¹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마 22:2-10).

애초에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초대를 거부했다. 이미 준비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 잔치에 청해 오라고 한다.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거리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고 혼인 잔치는 하객들로 넘쳐났다. 이처럼 뒤늦게 잔치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바울은 이 비유를 접붙임의 비유로 재해석했다. 한 올리브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 일부 가지가 잘려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 원래 야생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접붙임을 받은 후엔 진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공급받아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접붙임 받은 야생 올리브가지는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원래의 뿌리와 진액 덕분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바울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스스로 우월한 척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고난의 역사를 살아낸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근원이 사라지면 이방인들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바울의 이 권고는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절기와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음없는 자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믿는 유대인들 중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해 우월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일찌기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²⁸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²⁹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³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롬 3:28-30).

우리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고 그 혜택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도 잘려나갈 수 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9~22)

- ¹⁹ ἐρείς οὖν· (그러므로 당신이 말할 것이다)
ἐξεκλάσθησαν κλάδοι (가지들이 꺾여 나갔다)
ἵνα ἐγὼ ἐγκεντρισθῶ. (나로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 ²⁰ καλῶς· (그 말이 옳다)
τῇ ἀπιστίᾳ ἐξεκλάσθησαν, (그들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에 의해 잘려 나갔다)
σὺ δὲ τῇ πίστει ἔστηκας·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인해 섰다)
μὴ ὑψηλὰ φρόνει ἀλλὰ φοβοῦ· ([그러므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 ²¹ εἰ γὰρ ὁ θεὸς τῶν κατὰ φύσιν κλάδων οὐκ ἐρείσατο, (만약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μή πως] οὐδὲ σοῦ φείσεται.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 ²² ἴδε οὖν χρηστότητα καὶ ἀποτομίαν θεοῦ·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ἐπὶ μὲν τοὺς περόντας ἀποτομία,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ἐπὶ δὲ σὲ χρηστότητος θεοῦ,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ἐὼν ἐπιμένης τῇ χρηστότητι, (만약 그의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ἐπεὶ (만약 [그렇지 않으면])
καὶ σὺ ἐκκοπήσῃ. (너희들도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진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신학이나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일방적 선언을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잘려나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잘려나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들 생각에 자신들은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아무 필요가 없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유대인들이 생각한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 수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를 잘 나타내는 비유이니 다시 한 번 살펴 보기로 하자.

⁹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¹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¹¹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¹²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¹³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¹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

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9-14).

이스라엘의 일부가 잘려나간 이유는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했고 그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 눈에 세리같은 죄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유대인들이 탈락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실수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년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실수로 불의한 상황이나 부정에 연루되었을 때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점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그림자를 따르다가 실체를 놓치는 우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자에게 새생명을 주셨다.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 오셨으니 그림자요 모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열심히 행했다고 신앙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반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한 하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은 왜 이방인들도 잘려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석한다. 구원을 받긴 했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인간들은 본성으로 자신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유전병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음을 자랑한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이 행위로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뽐내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은 또 다른 율법이 되어 인간들의 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오늘날 교회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율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의로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기준이 되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는 것도 당연히 추가되었다. 요즈음은 동성애자들이 그 대상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 왜 유독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한 것은 버린다. 이리하고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상 배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신의 의를 더 중시 여기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도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의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게 위험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스라엘도 믿으면 구원된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23~24)

- ²³ κἀκεῖνοι δέ, (그러나 그들에게도)
ἐὰν μὴ ἐπιμένωσιν τῇ ἄπιστίᾳ, (만약 그들도 믿지 아니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믿으면))
ἐγκεντρισθήσονται·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δυνατὸς γάρ ἐστιν ὁ θεὸς πάλιν ἐγκεντρίσαι αὐτούς,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 ²⁴ εἰ γὰρ σὺ ἐκ τῆς κατὰ φύσιν ἐξεκότης ἀγριελαίου (당신들이 본성적으로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καὶ παρὰ φύσιν ἐνεκεντρίσθης εἰς καλλιέλαιον, (잘 경작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πόσω μᾶλλον οὗτοι οἱ κατὰ φύσιν ἐγκεντρισθήσονται τῇ ἰδίᾳ ἐλαίᾳ.
(원가지인 그들이야 얼마나 더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반율법적이어서가 아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겨서도 아니다.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후 초대 교회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서 그런 우상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오직 그것에만 매달렸다. 물론 종파별로 성경에 대한 해석, 삶의 방식 등은 달랐지만 그들의 신앙이 오직 성경에만 기반을 두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토록 성경을 애지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 세리, 창녀, 거지, 중증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여겼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결국 성경의 문구만 좇다가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자.

“³⁶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³⁷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³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³⁹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⁴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⁴¹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⁴²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요 5:36-42).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들까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지 다들 의아해 하고 있었다. 지금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베테스다 연못가에서 삼십팔 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 하신 것이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문자적인 내용에만 갇혀서 안식일이 주는 진짜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안식일은 특정인들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다. 하지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도 쉼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베테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이 사람은 삼십팔년 동안 단 하루도 안식이 없

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달력상의 안식일은 알았으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몰랐다. 안식을 모르니 그 안식을 통해 계시 되는 하나님의 진리 또한 알 리 만무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에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껍데기를 하나하나 덧씌워 왔다. 포로기 이후 시작된 유대주의는 마카비 혁명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들이 만든 교훈으로 점점 두꺼운 껍데기가 만들어져 마침내 그 안에 율법이 갇히는 형국이 되었다. 율법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 그들이 만든 각종 전통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만든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 속에 살아야 했고, 공동체에서 소외 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다. 반면 촘촘하게 만든 율법을 잘 지켜낸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훈장을 하나씩 추가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다. 자신들이 만든 의의 훈장, 거룩의 훈장을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려 했다. 그런 그들에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것을 불신 상태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 인간들에게 받는 칭송을 기준삼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의로움이라 여겼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다. 과연 그들의 불신 상태가 세상적으로 악을 만들어내고, 일탈을 조장하며,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바울도 그 점은 인정한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의로움에 집착하느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다. 전통을 지키고 행하되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의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그가 쓴 서신서 곳곳에서 발견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일부를 읽어보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바울의 말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하다. 그의 메시지에는 다른 어떤 것 과도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위도 중요하지 않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답은 한 마디로 ‘노’(No)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저주 아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어기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질서에 순응하라 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걸 항상 경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거나 또는 행위로 쌓아놓은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거나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 자비의 의미를 알기에 아무런 대가없이 기꺼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무엇으로 당신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미스테리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25~26)

- ²⁵ Οὐ γὰρ θέλω ὑμῶς ἀγνοεῖν, ἀδελφοί,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το, (형제들이, 나는 당신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ἵνα μὴ ἴτε [παρ'] ἑαυτοῖς φρόνιμοι, (당신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ὅτι πόρρωσις ἀπὸ μέρους τῶ Ἰσραὴλ γέγονεν ([이 비밀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ἄχρι οὗ τὸ πλήρωμα τῶν ἐθνῶν εἰσέλθ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 ²⁶ καὶ οὕτως πᾶς Ἰσραὴλ σωθήσεται.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같이)
 ἦξει ἐκ Σιών ὁ ῥυόμενος, (구원하는 자가 시온으로부터 있게 될 것이다)
 ἀποστρέψει ἀσεβείας ἀπὸ Ἰακώβ. (아굽으로부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돌려 세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일련의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을 발 각 뒤집어 놓았다. 오순절 당일에만 3000 명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던 차에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고수했으며 때마침 불붙기 시작한 ‘복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더욱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해 갔다.

우리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가 길어지면서 남한 사회 내에서 소위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단체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북유럽에 가면 오히려 보수에 속한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도 사상을 검열받는 사회다. 사회적인 검열은 물론 자기 검열도 심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한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왔던 유대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않다. 이런 유대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엡 1 장 참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하나 실행되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 시대에 복음 전파에 수차례의 변곡점을 만드셨다. 그 첫 번째가 스테반의 순교다.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편입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상도들도 각기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다. 전도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전도했다. 이로써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복음이 지역을 넘어갔다고 해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켰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것이 복음 전파의 두 번째 변곡점이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부름을 받은 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별도로 세워 파송을 하면서 복음 전파는 또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다. 아니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까지 했다. 바울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⁴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⁴⁵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기를 ⁴⁶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⁴⁷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⁴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4-48).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더더욱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방인 전도의 가장 큰 변곡점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건너간 일이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향하는 작은 배에 몸을 싣게 하셨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유럽 전도가 시작된다. 유럽의 이방인들중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의 반발은 더 극렬해졌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은 유대인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한 바울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다. 그 소식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면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 일행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 중 일부는 점점 더 완악해져갔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했다. 그들이 완악하면 할수록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결국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다만 그들 중 일부가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일부 세대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단 한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도 영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접할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설명했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구원을 멈추었다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참으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목상을 위한 질문

인류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